나주 에너지밸리, 2030년까지 1000개 기업 유치

총리 참석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
스타트업 200개, 1만5천명 육성
생산효과 4조, 고용유발 2만5천명

세계적 수준 ‘에너지 클러스터(집적단지)’를 표방하는 나주 에너지밸리가 오는 2030년까지 1000개 기업을 유치할 계획을 세웠다.

에너지밸리는 이 기간 동안 스타트업 200개사를 유치해 양성하며 1만5000명에 달하는 전문인력을 키워낼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1일 오후 나주 에너지밸리 기업개발원을 방문해 진행한 ‘에너지밸리 입주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발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총리와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용섭 광주시장, 강인규 나주시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전력을 포함해 에너지밸리 입주기업과 지역 유망기업인 보성파워텍, 이화산업전력, 인셀, 누리플렉스, 위테크, 데스틴파워, 스위코진광, 티디엘 등도 자리했다.

에너지밸리는 광주·전남과 한전 등 주도로 빛가람 혁신도시와 인근 산업단지에 에너지 신산업 기업과 연구소를 집중 유치하고 있다.

에너지밸리에는 지난해 말 기준 261개 기업이 투자를 이행해 지역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에너지밸리 투자기업 가운데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업체는 215개로 82.4%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공장을 짓고 있는 업체는 16개이며, 30개사는 부지 계약을 마쳤다.

한전이 주력 사업으로 내건 에너지밸리는 오는 2030년까지 선도기업 6개사를 육성하고, 1000곳에 달하는 기업을 유치할 계획을 지니고 있다.

스타트업 육성 목표는 200개사로 잡았으며, 1만5000명에 달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유발되는 생산효과는 4조3000억원, 고용 유발 효과는 2만4700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김 총리는 빛가람 에너지밸리에 입주한 에너지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간담회에서는 ▲에너지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지방기업 정주여건 개선 ▲중소기업의 신재생 프로젝트 참여 활성화 ▲이차전지산업 인프라 확충 등이 논의됐다.

그는 “지난해까지 261개 기업이 투자를 이행한 에너지밸리는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는 금융, 인력, 판로 지원 등 한전과 협력기업 간 상생협력을 실천하는 모범사례”라고 말했다.

또 그는 “이날 착공한 한국에너지공대 설립을 계기로 산·학·연 협력 활성화을 통해 에너지밸리가 명실상부한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에너지밸리가 있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는 지난 2015년 준공된 뒤 한전 등 16개 기관·공기업이 둥지를 틀었다.

지난해 말 기준 나주 빛가람동 인구는 3만6000명으로, 계획인구 5만명의 72%를 충족했다.

지난 2014년 인구 3895명에 비해 지난해는 3만6284명으로, 9배 수준으로 불어났다. KTX 하루 통행량은 6회에서 30회로 늘어났다.

이전 공공기관들은 지난해 광주·전남에서 8830억원에 달하는 물품을 구매했다.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27%로, 356명이 나주 혁신도시 기관 일자리를 얻었다. 지방세 납부액은 633억원에 달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김태용(왼쪽 네번째) 한전 디지털변환처장과 남기범(오른쪽 네번째)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경영관리본부장이 ‘파워체크 모바일 서비스 사업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한전 제공〉

한전-전기기술인협 ‘파워체크 모바일’ 협약

한국전력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와 ‘파워체크 모바일 서비스’ 사업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8일 서울 한전 아트센터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태용 한전 디지털변환처장과 남기범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경영관리본부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한전이 개발한 파워체크 모바일 서비스 활용과 전기안전관리 분야 기술교류 확대에 협력하기로 했다.

파워체크 모바일 서비스는 빌딩, 공장, 상가 등 대형 전력설비 운영에 필요한 전기품질과 전기안전 정보를 모바일 앱으로 제공한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이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전기품질 정보와 정전위험 경보 사전 알림 기능 등을 활용해 전력설비를 더욱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다.

한전 측은 여름철을 맞아 전력 과부하 기간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객 구내정전을 예방할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현장 점검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효율이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했다.

파워체크 모바일 서비스는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내려받을 수 있으며 오는 8월31일까지 무료로 제공된다. 이용 요금은 고압 대형빌딩 1호당 월 2200원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전KDN, ‘에너지밸리 경진대회’ 참가자 모집

7월1일~9월30일까지 접수

한전KDN은 ‘2021 빛가람 에너지밸리 소프트웨어 작품 경진대회’ 참가자를 오는 7월1일부터 9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15년 시작한 이 대회는 올해 7번째를 맞았다. 이 대회 출신 10명이 한전KDN에 입사하기도 했다.

광주·전남지역 일반·특수·전문대학·대학원 및 마이스터고 학생이면 참가할 수 있다. 팀별 최대 5명(1인~5인 1팀)까지 가능하다.

공모 분야는 따로 정해지지 않았다. 대학생의 경우 올해 수행한 ‘캡스톤 디자인’ 작품도 포함한다.

참가 신청은 오는 9월까지 홈페이지(kdn.com/kdncontest)를 통해 받는다.

1차 서류평가를 통과한 팀은 10월7일 이후부터 2개월 동안 서비스 개발을 진행한다. 11월24일 팀별 최종 심사를 거쳐 한전KDN 나주 본사에서 우수작 시상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24팀에게는 총 195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한전KDN 관계자는 “이번 경진대회는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학생들의 학사 일정을 고려해 대회 일정을 변경했고 시상규모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 상생발전과 인재 발굴을 위한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 사회적 가치 실현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지역 농식품 홍보물 aT 스튜디오서 만드세요

‘디지털 홍보콘텐츠 스튜디오’
전남대 후문 인근 ‘침잠’에 마련

우리 농식품의 우수성을 알릴 ‘디지털 홍보콘텐츠 스튜디오’가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후문 인근에 마련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광주시 북구 용봉동 사진작업실 ‘침잠’(우치로 84 지하 1층)에 aT 스튜디오를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지역 스튜디오는 광주와 서울, 대구에 들어섰다.

여기는 K-푸드의 디지털 홍보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aT 스튜디오는 농가와 농림축수산식품 기업의 제품 사진, 홍보영상, 온라인 상세페이지 등 디지털 콘텐츠를 전문가를 통해 제작해준다. 신청은 방문 및 온라인(aT-studio.co.kr)을 통해 할 수 있다.

사진은 온라인 신청페이지에서 촬영하려는 제품군과 필요한 컷 수를 지정하면 전문 사진작가가 촬영을 진행하기 때문에 방문 없이도 간편하게 제품 사진을 제작할 수 있다.

홍보영상은 스튜디오 내방 촬영과 출장 촬영으로 나뉘며, 15초·30초·5분 등 신청자가 희망하는 영상 길이에 맞춰 진행한다. 상세페이지는 네이버·11번가·포스몰 등 입점 플랫폼과 부류별로 가장 적합한 디자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빠르고 쉽게 맞춤형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다.

aT 스튜디오의 자세한 이용 방법, 비용 등은 온라인신청페이지(aT-studio.co.kr)에서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6300-1901.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새얼굴

“에너지 분야 창의적인 솔루션 도전”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

“탄소중립이라는 에너지 산업의 대전환기에 에너지 분야의 선제적 기술혁신, 과감한 에너지 시스템의 전환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솔루션을 찾아 과감한 도전을 하겠습니다.”

1일 한국전력 21대 사장으로 취임한 정승일(56·사진) 신임 사장은 이날 오전 나주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 같은 경영방침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지낸 정 신임 사장은 서울 출신으로 경성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33회에 합격, 1990년 동력자원부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산업부 반도체전기과장, 에너지산업정책관, 자유무역협정정책관, 에너지자원실장 등 산업·통상·자원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2018년에는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지냈다.

정 사장은 “탄소중립시대의 에너지분야 패러다임은 탈탄소화, 분산화, 지능화”라며 “한전이 전력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전력 산업 전반의 탈탄소화를 위한 두 축은 에너지믹스의 과감한 전환과 효율 향상”이라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 신재생발전 확대에 최적화된 송변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력의 생산, 운송, 소비 전주기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불필요한 일버리기와 공부 문화를 확대하고, 든든한 기업이 되기 위해 공공성과 기업성 측면의 기대 역할을 충족시키며, 미래 기술 로드맵 공유, 제품 구매 등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